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8p, 중고선가 지수 101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8p(-, WoW), 중고선가 지수는 101p(+2p, WoW)를 기록함. 삼성중공업이 15,000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 5+5척과 LNG추진 VLCC 4척을 수주함. 대우조선해양은 Zodiac Maritime으로부터 15,000TEU급 스크러버 탑재형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함. 현대미포조선은 40,000CBM급 LPG선 2+1척과 1,800TEU급 피더컨테이너선 1척을 수주함. (Clarksons)

대우조선해양, VLCC 2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SK해운으로부터 scrubber 탑재형 VLCC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8,750만달러이고 납기는 2022년 4월과 6월까지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세계 최대급 탱커 용선주인 인도 Reliance에 용선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범주해운, 현대미포에 '컨'선 발주

현대미포조선은 범주해운으로부터 1,800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친환경 설비를 갖췄으며, 2022년 3월에 인도 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10년 내 LNG선 320척 발주

2030년까지 10년 내 최대 320척의 LNG선이 발주되어야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라고 보도됨. LNG 수요는 2040년경 717MTPA로 늘어날 전망이며 증가량의 약 75%는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도됨. VLEC 추사 소요 척 수는 25~40척이며 FSRU는 10~20척만 발주되면 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미국 LNG 수출 증가 기조 유지

미국의 LNG 해상 수출 물량이 2021년 1분기와 4분기, 그리고 2022년 중 가스관을 통한 수송 물량보다 많을 전망이라고 보도됨. 지난 11월 LNG 월간 수출 물량은 가스관 수출량보다 약 1.2Bcf/d(billion cubic per day) 많았다고 보도됨. 미국은 6개 LNG플랜트를 통해 9.5Bcf/d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탱커 시장 크게 왜곡

탱커 시장 운임이 저조한데 비해 선가는 강한 복원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고령 VLCC의 경우 해체 가격을 크게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됨. 전체적으로 보면 수송 물량 규모는 줄어들면서 탱커 시장이 상당히 왜곡된 상태라고 보도됨. (선박뉴스)